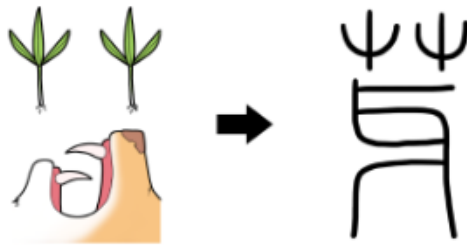


3(2)  
-  
271

회의문자①



芽

싹 아

芽자는 '새싹'이나 '(싹이)트다', '처음'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芽자는 艸(풀 초)자와 牙(어금니 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牙자는 짐승의 송곳니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뜻이 아닌 모양자로 응용되었다. 芽자는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온 송곳니를 그린 牙자를 이용해 땅 위로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새싹은 식물이 처음 삶을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芽자는 '시초'나 '시작'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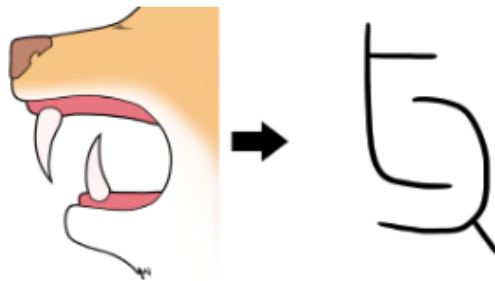
소전

芽

해서

3(2)  
-  
272

상형문자①



牙

어금니  
아

牙자는 '어금니'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牙자는 윗니와 아랫니를 함께 그린 것이지만 '어금니'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牙자는 사람이 아닌 동물의 이빨을 그린 것이다. 금문에서 나온 牙자를 보면 동물의 앞니가 서로 맞물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유래와는 관계없이 牙자는 단독으로 쓰일 때만 '이빨'과 관련된 뜻을 전달하고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발음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다.

牙

금문

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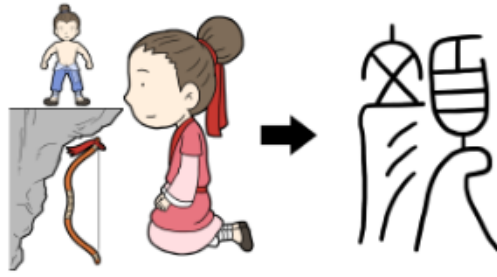
소전

牙

해서

3(2)  
-  
273

형성문자①



顏

낯 안:

顏자는 '낯'이나 '얼굴', '표정'을 뜻하는 글자이다. 顏자는 彦(선비 언)자와 頁(머리 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彦자는 '선비'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顏자는 '얼굴'이나 '얼굴색'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로 頁자가 의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顏자는 '체면'이나 '명예', '염치'와 같이 사람의 얼굴에서 연상될 수 있는 다양한 뜻이 파생되어 있다.

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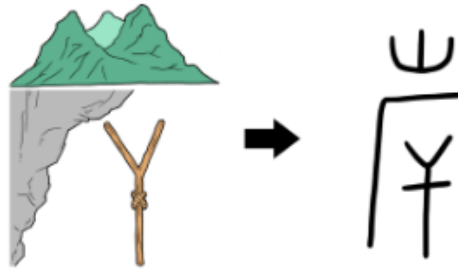
소전

顏

해서

3(2)  
-  
274

형성문자①



岸

언덕 안:

岸자는 '언덕'이나 '남떠러지', '증계'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岸자는 山(되 산)자와 厓(기슭 엄)자, 干(방패 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干자는 '방패'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언덕'이란 산이나 강기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슭'을 말한다. 그래서 높고 기슭 진 곳이 많은 山자와 厓자를 결합해 '기슭'이라는 뜻을 표현했다.

岸

금문

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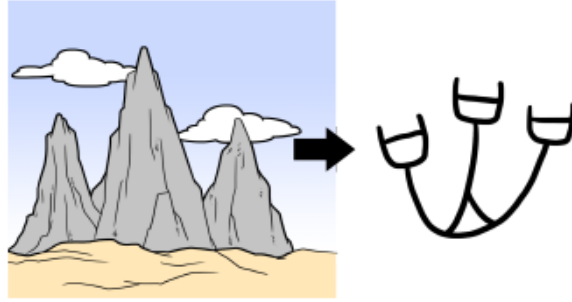
소전

岸

해서

3(2)  
-  
275

상형문자 ①



巖

바위 암

巖자는 '바위'나 '언덕', '벼랑'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巖자는 山(되 산)자와 巖(엄할 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巖자를 보면 산봉우리에 돌이 올려져 있는 巖 모습만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산 중턱에 있는 '바위'나 '벼랑'을 표현한 것이다. 소전에서는 山자와 巖자를 결합한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산세가 가파른 곳'이라는 뜻의 巖자가 만들어졌다. 巖자는 획이 복잡하므로 岩(바위 암)자가 속자(俗字)가 쓰이기도 한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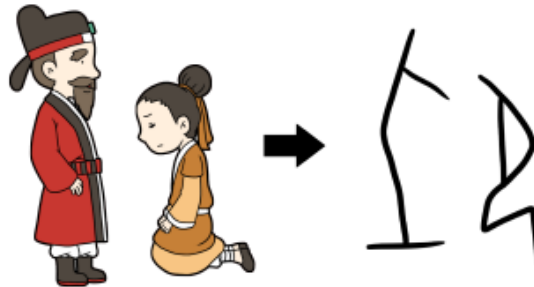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276

형성문자 ①



仰

우러를  
양:

仰자는 '우러러보다'나 '경모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仰자는 人(사람 인)자와 仰(나 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仰자는 서 있는 사람과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을 함께 그린 것으로 누군가를 경배하고 있는 仰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본래 '우러러보다'라는 뜻은 仰(나 양)자가 먼저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仰자가 '나 자신'이나 '위풍당당한 모습'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여기에 人자를 더한 仰자가 '우러러보다'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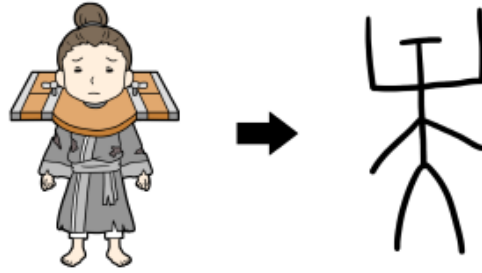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277

회의문자①



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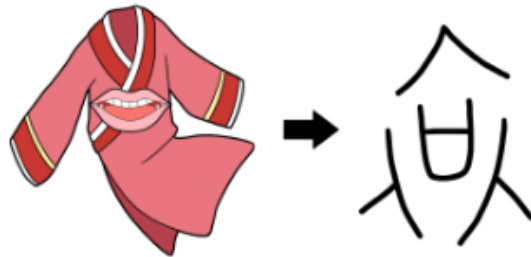
가운데  
양

央자는 '가운데'나 '중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央자는 大(큰 대)자와 冂(먼데 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 나온 央자를 보면 사람 머리에 무언가가 𠂔 걸쳐져 있었다. 이것은 목에 가추(枷杻)를 차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가추는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목에 씌우던 나무칼을 말한다. 그러니 央자는 사람이 가추의 중앙에 자리 잡은 모습에서 '가운데'라는 뜻을 갖게 된 글자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278

회의문자①



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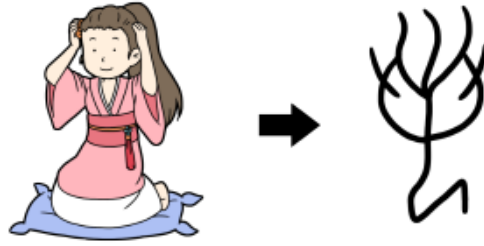
슬플 애

哀자는 '슬프다'나 '가엾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哀자는 衣(옷 의)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哀자의 금문을 보면 衣자 중앙에 口자가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장례를 치를 때 입는 옷인 '상복(喪服)'을 표현한 것이다. 상복을 입은 사람은 분명 상주(喪主)일 것이다. 그래서 哀자는 장례를 치르며 슬픔에 겨워 울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슬프다'나 '가엾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금문	소전	해서


3(2)  
-  
279

상형문자 ①



若

같은 약  
| 반야  
야

若자는 '갈다'나 '만약'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若자는 艸(풀 초)자와 右(오른쪽 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若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갑골문에서는 양손으로 머리를 빚는 여인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갑골문에서의 若자는 '온순하다'나 '순종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금문에서부터는 여기에 口(입 구)자가 추가되면서 '허락하다'라는 뜻이 더해졌다. 하지만 소전에서는 若자가 '갈다'나 '만약'과 같은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言(말씀 언)자를 더한 諾(허락할 낙)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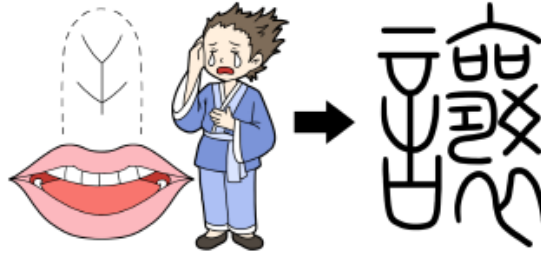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280

회의문자 ①



讓

사양할  
양:

讓자는 '사양하다'나 '양보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讓자는 言(말씀 언)자와 襄(도울 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먼저 襄자를 살펴보면 衣(옷 의)자와 口(입 구)자와 같은 매우 복잡한 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상(喪)을 당해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襄자에 言자를 결합한 讓자는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을 '(말로)도와주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讓자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양보해준다는 의미에서 '양보하다'나 '사양하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다.



소전



해서